

GH, '생활 밀착형 주거복지' 모델 5건 선정

입력 : 2025-05-30 09:59 | 수정 : 2025-05-30 09:59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년 주거복지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해 생활 밀착형 주거복지 모델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모는 GH가 경기도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주관했다.

공모에 도내 12개 기초 주거복지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총 1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아래 5개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모델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생활 집수리 교실'): 1인 가구·고령층 대상 체험형 교육 ▲광명시 주거복지센터('홈반장 살림업'): 비정상 거쳐 대상 가구 지원 (200만원 한도) ▲광주시 주거복지센터('AIP 주거환경개선'): 1인 노인·장애인 대상 주택 진단·개선 ▲부천시 주거복지센터('화재안전물품 지원'): 취약계층 자동소화콘센트 등 제공 ▲시흥시 주거복지센터('이주배경 청소년 연대'): 집수리, 캠페인 등 종합 활동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사업비 지원과 실행 컨설팅이 10월까지 제공된다. 이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 밀착형 주거복지 모델을 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23개 기초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28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과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펼칠 방침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는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실용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발굴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